

晦堂 張錫英論*

이택동**

<차 례>

1. 머리말
2. 회당의 사유와 對現實眼
3. 회당 시문의 몇 국면
 - 1) '後王費'의 慷慨
 - 2) '後死悲'의 悔恨
 - 3) '離鄉客'의 苦楚
4. 마무리

<국문초록>

본고는 전통적인 지성의 서세동점기에서의 응전의 구체적인 내함을 살펴 그 의미를 규명하려는 장기적인 기획의 일환이다. 기실 우리는 전통적인 유림의 당대적인 응전에 대해 모호하고 흐릿한 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통적인 절의가 근대와 조우하며 제출했던 구체적인 細目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세목에 대한 점검에 항목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회당의 시작품은, 특히 당대 현실에의 대응에서 피어난 소회를 예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詩句만으로 좁혀 각각 '後王費'의 慷慨, '後死悲'의 悔恨, '離鄉客'의 苦楚로 항목화하여 그 대체적인 양상을 살폈다. 지속적으로 사치와 방종으로 쇠락에 이른 군주들을 비판하고 있으니 이는 분명 당대 조선 왕조의 末弊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저러한 왕조의 말폐에 말미암아 망국민으로 전락한 간도 流民들의 참상을 회당은 선연하게 그려내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독립을 위해 풍찬노숙하였으나 사세를 돌이킬 수 없게 되자 '後死悲'

* 본 연구는 2007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의 회한에 젖는 정도도 제출되고 있다. 이러한 회한은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비단 회당만이 아니라 겨우 ‘苟生’하고 있다는 起岩의 인식에서도 확인되니 그렇다면 잠정적으로는 국권 회복을 위해 분투했으나 바람을 이루지 못한 당대 전통적 지성의 보편적인 현실 인식이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주제어 회당 장석영, 이증업, 전통적 지성, 반제국주의, 19세기, 20세기

1. 머리말

이 글에서 검토하려는 인물은 회당 장석영이다. 1851년에 태어나 1929년에 타계한 회당의 생평은, 한주 이진상을 종장으로 하는 한주학파의 일원이었다는 점과 독립을 위해 만주에서 풍찬노숙한 우국지사였다는 사실로 집약될 수 있다. 과묵한 대로 퇴계학의 主理的 측면을 보다 강조하여 ‘心卽理’를 주창한 寒洲의 고제이며, 국치 이후 영남의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유림이었다는 점이 우리에게 그려지는 회당의 모습이다. 회당을 두고 그의 인식과 정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기존 논의는 있지 않다. 이 글은 그러므로 회당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인 셈인데, 22책 43권에 이르는 거질을 남긴 인물에 대한 첫 조명이 만큼 거칠고 성근 논의로 시종하리라는 점은 예정된 일이라 하겠다.

본고는 전통적인 지성의 서세동점기에서의 응전의 구체적인 내함을 살펴 그 의미를 규명하려는 장기적인 기획의 일환이기도 하다. 기실 우리는 전통적인 유림의 당대적인 응전에 대해 모호하고 흐릿한 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한 것이다. 전통적인 절의가 근대와 조우하며 제출했던 구체적인 細目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세목에 대한 점검에 항목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인 셈이다.

2. 회당의 사유와 對現實眼

앞서 이야기하자면 회당의 사유를 지탱하는 핵심향은 ‘主理’인 것으로 보인다. 주리적인 논거를 보위하고 반주리적이거나 비주리적인 경향에 대해 호교적인 응전을 행한 것이 회당 사유와 실천적인 고투의 대강인 것으로 판단된다. 회당 사유의 근간은 ‘여러 성현들 은미한 말씀은 모두 理를 위주로 하였다네(千聖微言皆主理)’¹⁾라는 시구에 집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은미하며 오묘한 성현의 가르침이 모두 理를 위주로 하였다는 해당 구절은 주리적 사유가 회당의 인식이나 사유 방식을 규율하는 근본향임을 확인케 한다.

이처럼 주리적인 사유를 근간으로 하는 회당이기에 主氣적인 경향성에 대한 불만이 문집 도처에 산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겠다. 1916년에 歿한 스승 한주의 자제에 대한 만사에서는 ‘동국의 사람들 主氣한 지 백여 년인데, 理學하는 집안에서 父祖의 책 읽었다네(東人主氣百年餘, 理學家中讀父書)’²⁾라고 하여 주기적인 사유가 사상계의 주류로 자리한 지난 시기를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독립운동을 위해 옥고도 치르고 국외를 유랑한 인물이기도 한 啓道에 대한 만사임에도 표나게 내세운 것은 主氣가 대세를 이룬 백여 년 이래에 主理를 주창한 家學 속에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니 그만큼, 主理에 대한 尊信과 主氣에 대한 반감이 완강하다는 것을 웅변한다 하겠다. 회당 사유의 이러한 특징은 당대 사회의 조류나 사조에 대한 대응에 기저하는 준칙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유념되어야 한다.

1) <挽尹忠汝胄夏0丁未>, 『晦堂先生文集卷之一』.(경인문화사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4권. 261-262면.)

2) <挽李啓道五絶丙辰>, 『晦堂先生文集卷之二』.(경인문화사 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4권. 302-303면.)

다른 한편 회당은 호락논쟁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론을 제출하고 있는데 호락논쟁에 대한 인식의 밑자락에는, ‘갑은 갑이 옳다고 하고 을은 을이 옳다고 하나 결국은 氣를 주로 하는 잘못으로 함께 귀결되고 말았다(甲曰甲是, 乙曰乙是, 而畢竟同歸於主氣之失)’³⁾고 한 언급에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호론이든 낙론이든 그 실책은 主氣에 빠진 것이라는 이해를 제출하고 있다. 1898년에 農山 張升澤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나는 인간과 동물이 천성을 보유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性 됴에는 저마다 차이가 있다고 여긴다(愚謂人物之有天性則同, 而其爲性則各異也)’⁴⁾고 하며 논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다. 층위에 따라 인성과 물성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는 입장이라 하겠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입론이 순연히 사상계 내부의 사유에 의해 도출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근세기의 낙인들은 같음만을 보고 같은 중에 차이를 보지 못하였으며, 호인들은 다름만을 보고 다른 가운데 같은 측면은 보지 못한 채 서로 다투기만 하였으니 진실로 쓸모없고 가소롭다 하겠다.(近世洛人, 見其同而不見其同中之異, 湖人見其異而不見其異中之同, 互相爭競, 眞是閒笑)⁵⁾

3) 호락논변에서는 논쟁의 불거진 대목을 아래와 같이 여섯으로 항목화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心이 氣라는 명제. 인간과 동물의 본성의 同異 문제. 未發時의 氣質之性의 有無 여부. ‘天命之謂性’을 분리하여 두 부분으로 截斷하여 천명은 본연지성으로 간주하고 성은 기질지성으로 간주하는 문제. 호연지기를 품부받음에 현자와 우자의 편차가 있다는 주장. 충막무집은 정상에서만 운위 가능하다는 주장(其一曰, 心卽氣也. 其一曰, 人物性同異也. 其一曰, 未發時氣質性有無也. 其一曰, 天命之謂性一句分作兩截, 天命作本然性, 性字作氣質性也. 其一曰, 浩然之氣, 賢愚之所稟不同也. 其一曰, 冲漠無朕, 只可於靜上言也.)(<湖洛說辨>, 『晦堂先生文集卷之二十二』.(경인문화사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7권. 395면-402면.))

4) <答張農山>, 『晦堂先生文集卷之三』.(경인문화사 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4권. 402-405면.)

인용한 대목의 말미에 명시적으로 토로되어 있듯이 조선조 후기 사상계를 뜨겁게 달군 호락논쟁을 보는 회당의 시선에는 미묘한 냉소가 함께하고 있는 바, 이러한 태도는 호락논쟁이 주기론자 내부의 논의라는 점과도 일정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湖洛說辨」이라는 논문을 통해, 「間中疾書」라는 수상록을 통해 그리고 동도들과 주고받은 書信을 통해 지속적으로 호락논쟁에 대해 논변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관심을 추동한 동인에는 호락논쟁이 주기에 치우친 입론이라는 점에 대한 불만도 아주 없지는 않았던 것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主理的인 종지에 대한 폄훼나 비판에 대해서는, 비유하자면 호교적인 성전을 치르는 자세로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응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핀 대로 호락논쟁에 대한 회당의 인식에서 그러한 응전의 일단이 확인되며, 孔敎에 대한 준열한 논박에서는 그러한 응전이 보다 예각적으로 드러난다. 장지연에게 보낸 서신에서 공교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와 같은 언명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孔孟과 程朱의 가르침을 돌아보니 온 천하에 감감하고 그 사람(강유위)은 五洲一士라 하는데 논하는 바가 이와 같으니 한번 더불어 논변하지 않을 수 없겠다. 공자를 위하여 발명하고 정주를 위하여 伸救하여 천하사람들로 하여금 공맹정주의 학문이 아직 우리 동방에 존재함을 알게 하겠다.(顧今孔孟程朱之敎, 晦盲於天下, 而其人以五洲一士所論如此, 此不可不一與之論辨, 爲孔子發明, 爲程朱伸救, 使天下知孔孟程朱之學, 尙在於吾東也)⁶⁾

5) <間中疾書>, 晦堂先生文集卷之十八』.(경인문화사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7권. 135-136면.)

6) <與張舜韶志淵0辛亥>, 晦堂先生文集卷之八』.(경인문화사 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5권. 246면-247면.)

회당은 康有爲의 주장으로 세를 불러가는 공자교가 맹위를 떨칠 경우 吾道가 왜곡되고 세태도 오염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바, 특히나 공교에 의해 제출된 아래와 같은 인식에는 가위 ‘護教的’이라 할 정도의 날선 응전이 개진된다.

孔敎에 종사코자 한다면 먼저 俗學을 배척하여 雲霧를 걷어내고 맑은 하늘을 보아야 하는데 가장 먼저 말할 것은 宋儒의 학문을 배척해야 한다는 것인데 宋儒들이 겨우 공자의 修己之學만을 운위했을 뿐 救世之學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欲從事於孔敎, 不可不先排俗學, 以撥雲霧而見青天, 第一曰排斥宋儒之學, 以其僅言孔子修己之學, 不明孔子救世之學也)⁷⁾

공자를 신격화하려는 공교의 시각에서는 사변적인 논의를 극한에까지 밀고 간 宋儒들이 불편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회당의 반응은, 비유적인 표현이 허용된다면 마치 용단폭격을 가하듯이 공교의 주장 모두를 날날이 논박하고 있다. 그런데 괴력된 논지를 꼼꼼히 살피면, 宋儒의 修己之學이 지니는 긍정적인 공능에 동의한다면 공교도 수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논의가 정리되고 있다. 그렇다면 회당은 다른 무엇보다도 송유를 폄하하는 공교를 참아낼 수 없었던 것이다. 회당에게 공교의 관건적인 문제점은 程朱를 존송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바, 가령 예수교를 받아들 이느냐는 논란이나 왕정의 존폐 등은 차라리 부차적인 결가지였다고 할 수 있겠다.

생각건대 천하의 대세가 이미 공화제로 정해져 있으니 이는 아마도 운수가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겠으니 인력으로 따질 수 없으리니 어찌겠는가.(竊

7) <與康廣夏有爲0丙午>, 『晦堂先生文集卷之五』. (경인문화사 영인, 한국역대문집 총서 895권. 2-12면.)

念天下大勢, 已大定於共和, 此蓋氣數之使然, 非人力之間何也)⁸⁾

과연 인용문에서도 공화제가 천하의 대세로 자리잡은 것은 운수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이라며 수긍하고 있다. 해당 서신에서 강유위에게 ‘상하가 질서가 있는(尊卑有序)’ 사회를 제안하며 하늘에 태양이 들일 수 없는데 나라마다 稱帝하는 경향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표명한 회당임에도, 공화제를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언급을 통해서도 회당에게 있어 공교의 성패나 공과는 부차적인 사안으로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그들이 정주학을 받아들이나 그렇지 않느냐에 온 신경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스스로 천 길이나 되는 陸王의 혼탁함에서 벗어나 우리 紫陽의 주리학에 종사하여 공교를 恢張한다면, 수레를 만드는 방식이 못에 다닐 때는 (바퀴를) 얇게 하고 산에 다닐 때는 (바퀴를) 가지런히 하는 것에 가까워져서 세상으로 하여금 밝은 동글고 안은 모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自脫於陸王千丈之渾, 從事我紫陽主理之學, 恢張孔教, 庶乎其一車之法, 澤而杼而山而侔, 使一世而圓其外而方其中矣)⁹⁾

인용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송유들의 주리학에 동조하기만 한다면 공교를 변통으로 여길 수 있다고 하고 있으니 程朱學에 대한, 宋儒의 다기한 경향 중에서도 특히 主理를 주창하는 목소리에 대한 존신의 정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어서 살핀 바와 같은 사유로 무장한 회당의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는지를 간략히 점검한다.

8) <與李南彬丙辰>, 『晦堂先生文集卷之五』. (경인문화사 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5권. 24면.)

9) <答李南彬乙卯>, 『晦堂先生文集卷之五』. (경인문화사 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5권. 20-21면.)

전제되어야 할 점은 특정 인물의 대현실안은, 자신이 내면화하고 있는 사유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보다 탄력적이라는 사실이다. 내면화한 사유 역시 연륜의 축적이나 환경의 변화와 함께 심화하거나 변전되기 마련이지만 그러한 심화나 변전은,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의 변화보다는 완만하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정은 당연히 회당에게도 해당되는 바 특히 국권 상실 이후, 독립에의 투신이 소기의 결실을 맺지 못한 노년기에, 그러한 변모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지성의 당대예의 대응 양태를 회당을 통해 살피고 있는 본고에서, 이러한 측면은 그 의미가 다대하니 장을 넘겨 상세히 살피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우선 중년기 이전의 회당에게 확인되는 현실 인식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오호라, 중화의 문물이 바뀌어 이적이 되고 선왕의 강역이 원수들에게 귀속되었으니 뉘라서 개탄하고 근심하며 통곡함이 없겠는가. 다만 이로 인해 우리 독서를 폐하고 물리친다면 이는 사위 어금니가 아프다고 장모 정강이에 뜬을 뜨는 꼴이라네. 국가의 환난은 서책의 죄가 아니니 밭을 다투고 물을 다투는 꼴을 보았다고 신농씨와 후직씨를 좇아가 꾸짖는다면 이치에 맞는 일이겠는가.(嗚呼中華文物, 化爲夷狄, 先王土宇屬之仇敵, 夫孰不慨憂永歎, 繼之以慟哭哉. 但因此而廢却吾讀書, 則是殆女墮牙疼, 而却灸丈母脚踢也. 國家之亂, 非書之罪也. 見有爭田爭水, 而追咎神農后稷, 豈理也哉)¹⁰⁾

乙巳勒約이라는 만행에 대한 대응으로 상경하는 길에 학생들에게 주는 글로서는 이채롭다 할 정도로 傳統素에 대한 遵信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운이 백척간두에 놓인 정황을 두고 강개하고 비분하여 길이

10) 〈與學者乙巳疏行時〉, 『晦堂先生文集卷之十七』. (경인문화사 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7권, 79-81면.)

탄식하며 통곡에까지 이르기도 하겠지만, 時事가 아무리 긴박하게 전개된다 하더라도 독서에 힘쓰라고 당부하고 있다. 누란의 위액을 조우한 절체절명의 즈음에 전통과 吾道를 묵수하라고 간곡하게 신칙하고 있는 것이다.

쉬 표변하지 않을 이러한 부동심은 근본에 대한 강고한 신뢰가 자리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을 삶의 자세인 것으로 보인다. 나라의 환란이 전통적인 사유의 弊害는 아니니 평정을 잃지 않으며 잠심하여 독서하라는 권면에서는, 외적 정황의 추이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의연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겠다.¹¹⁾ 장년 이전 회당의 이러한 의연함은 시편을 통해서도 거듭 피력되는데 崔孤雲의 작품을 차운한 아래 시편도 그러하다.

시비를 다투는 소리 귀에 들림 구태여 꺼릴 일 있으라,
흐르는 물소리 속에 자신이 산에 있는데.
(是非到耳何須恐, 流水聲中自在山)¹²⁾

최고운이 「題伽倻山」을 쓴 이력을 기려 세운 籠山亭에서 고운의 原韻에 차운하여 1889년에 쓴 작품이다. 흥미로운 점은 고운 시편의 핵심적인 정조를 그 시편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누정에서 전복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항상 시시비비를 다투는 소리 귀에 이르는 것을 저어하여, 부러 흐

11) 전술한 대로, 을사늑약의 매국 오적을 주살하라는 상소를 올리는 길에서도 확인되는 이러한 부동심은, 그러나 국권 상실 이후 만주에서의 가열찬 항일 투쟁에도 국운 회복이 어려워지자 '글 읽어봐야 그 뉘가 우리나라 구할 방도를 가르쳐주라(讀書誰教濟青邱), <安東縣逢故國人盧致三相益致八相稷孟士幹輔淳李大衡斗勳共賦>, 晦堂先生文集卷之二』.(경인문화사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4권. 283면-284면..)'는 언명에서처럼 전망이 부채환 상태에서의 음울한 진단으로 바뀐다는 점도 유념되어야 한다.

12) <籠山亭次原韻己丑>, 『晦堂先生文集卷之一』.(경인문화사 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4권. 217면.)

르는 물로 하여금 산을 온통 에워싸게 하였다네(常恐是非聲到耳, 故教流水盡籠山)¹³⁾라는, 인구에 널리 회자되는 고운의 시구는 외물에 구애됨을 저어하는 경계와 사려가 핵심적인 정조라 하겠다. 그런데 스스로 산중에 자리하고 있으니 시시비비를 다투는 속세의 다툼소리가 귀에 닿는 것을 근심할 까닭이 없다는 회당의 인식에서는 의연히 중심을 지키고 있어 외물에 의한 흔들림을 우려하지 않는다는 득의로움이 묻어나는 것이다. 아래 詩句는 을사늑약에 항의하며 매국 오적을 참형에 처하라는 상소를 올렸다가 투옥된 李承熙의 시편에 차운한 1906년의 작품이다. 앞의 작품에서 읽은 도저한 득의로움은 일정 부분 찾아들어 있지만 광명을 회복하리라는 신념은 결코 철회하지 않는다.

촌 닭들 울며 신년을 노래하는데,
어느 사람은 판잣집에서 괴로워 잠 못 드네.
조정에서 나라 좀먹는 무리들 떠올리니,
붉은 용단에 긴 밤 내내 흥취 도도하리라.
우리들 도 배웠으나 간고한 시대 만나,
부질없이 한 세상 살아감이 부끄럽구나.
석양이 쇠해져도 없어지진 않아,
태양이 뒷날 다시 옴은 안다네.

(村鷄喔喔唱新年, 板屋何人苦未眠. 遙想金門蝥國輩, 紅氍長夜樂陶然.
吾人學道遇時艱, 慙愧虛生一世間. 知有殘陽消不盡, 皓天他日也應還)¹⁴⁾

매국노들이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오적을 벌주리는 상소를 올

13) <題伽倻山>, 大東詩選卷之一』. 아세아문화사영인본. 20면.

14) <次李啓道獄中除夜韻二絕 丙午>, 晦堂先生文集卷之一』.(경인문화사 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4권. 256면.)

린 이승희는 감옥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시편은, 사직의 운명이 비록 작금에는 석양에 견주어질 정도로 쇠락해 있지만, 석양이 마냥 자취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여명으로 다시 밝아 오듯이, 국운의 흥융을 기약해야한다는 유장한 낙관으로 끝맺고 있다.

살핀 바와 같이 회당은 주리론적 사유를 근간으로 하여 그에 반하는 사조나 경향에 대해 논전을 불사하고 있었으며, 적어도 장년 이전에는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에 있어 儒者로서의 의연함을 견결히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특히 詩文으로 좁혀, 회당의 내면과 당대 인식을 셋으로 항목화하여 그 양상을 검토하기로 한다.

3. 회당 시문의 몇 국면

1) ‘後王費’의 慷慨

회당 시편의 대체적인 경개는 당대 여느 유림의 그것과 별다른 차별성을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輓詞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누정에서의 敍景이나 抒情도 빈출한다. 아울러 ‘吾道’에의 자기 다짐이나 선현에 대한 앙모를 담은 시편도 드물지 않다. 이와 같이 당대 보편의 정서에 맞닿아 있으면서, 한편으로 회당의 개아적인 면모를 보이거나 당대 사회와 부딪히며 빚어낸 이채로운 대목도 없지 않은 바 이 자리에서는 셋으로 항목화하여 그 양상을 살피도록 한다. 후왕계의 강개와 후사비의 회한 그리고 이국에서의 신산스러움이 그것이다.

후삼국 말엽의 창생들 액운을 당했더니,

진인이 한번 나타난 송악산은 쭈뼛하네.
 후왕들이 器量은 없이 황음만 자심한데,
 당년 창업 노고는 생각조차 않는지.

(三季蒼生百六遭, 眞人一出嶽崧高. 後王無度荒姪甚, 不念當年創業勞)¹⁵⁾

1882년, 개성을 여행하며 촉발된 시상을 담아낸 작품이다. 고려의 수도를 지나치며 피어나는 감개를 적고 있는 바, 후삼국 시대의 혼란과 혼란속을 부대끼며 살아간 민초들의 고초를 왕건이 등장하여 타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麗朝의 후대 군주들이 황음을 일삼아 창업주의 노고와 업적을 바래게 하였다고 그 감상을 정돈한다. 해당 작품은 영고와 성쇠를 되풀이하는 인간사 일반이나 왕조의 교체에 대한 “통상적인” 정조로 읽어내려도 전혀 무방하다. 더욱이나 동제각수의 이어지는 시편에서는 ‘들풀과 귀리만 이득한 곳이, 온통 당시엔 卿相들의 집이었다네(兔葵燕麥蒼茫處, 盡是當時卿相家)’¹⁶⁾라고 읊고 있으니 회고시 일반의 관례에서 쓰인 작품으로도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조는 비단 해당 작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작품들에서도 반복적으로 피력되고 있기에 회고시 일반의 관례나 독법으로 읽는 데에서 그칠 수 없다. 아래 시편에서도 위의 작품에서 피력된 정조가 대차없이 변주되고 있다.

세 단 섬돌 앞에서는 온 나라가 태평하였는데,
 뒷 왕들은 어찌하여 사치로 허비하나.
 사람으로 나서 가장 한스러움은 衰世에 태어나

15) <松京懷古五絕壬午, 其一>, 『晦堂先生文集卷之一』.(경인문화사 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4권, 210-211면.)

16) <松京懷古五絕壬午, 其二>, 『晦堂先生文集卷之一』.(경인문화사 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4권, 211면.)

夔龍과 이 조정에 서지 못한 일.

(三等堦前萬國平, 後王何事費瑤瓊. 人生最恨生衰世, 不與夔龍立此庭)¹⁷⁾

군왕과 朝臣들을 함께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家藏 되어 전해져 온 병풍의 제화시를 차운한 작품이기에 관성적인 정조를 피력한 작품이라 읽을 수도 있겠다. 역사 일반을 상징하며 피어오른 단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정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작품 속에서도 확인되며 이러한 정조를 표출하고 있는 작품이 되풀이하여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수'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왕실의 섬돌이 세 층일 정도로 검박함을 실천한 堯舜期에는 온 천하가 태평하였는데, 그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淫佚에 젖은 후대 군주들을 비판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해당 시기 군주의 잘잘못을 直敍하지 못한다는 관례를 염두에 둔다면 국운을 백척간두에 이르게 한 군주에 대한 우회적인 불만으로 읽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아래 작품에서는 청조의 예를 통해 후왕의 무능을 비판하고 있는 바 함께 살피기로 한다.

심양의 가려함은 요동의 으뜸인데,
제업의 흥융함 이곳에서 열었네.
뒷 임금 천명이 가리란 걸 알지 못하여,
가련하게도 오늘엔 심궁에 갇혀 있네.

(瀋陽佳麗冠遼東, 帝業興隆肇此中. 後辟無知天命去, 可憐今日閉深宮)¹⁸⁾

17) <右帝堯茅茨土堦>, <用先祖文康公畫屏命題家藏八帖屏八絕, 其一>, 晦堂先生文集卷之一』.(경인문화사 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4권. 237면.)

18) <遼東五絕>, 晦堂先生文集卷之二』.(경인문화사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4권. 285면-286면.)

청나라를 대상으로, 그리고 고려를 대상으로도 전혀 동계의 시상이 제출되고 있으니 그렇다면 이러한 작품은, 거듭 말하거니와 청나라나 고려가 아니라 당대 조정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의 작품들이 음일에 빠져 있고 소비를 일삼는 후왕들의 행태를 개탄하고 있는 데에 그친 반면 당대 청조를 비판하면서도 심궁에 유폐된 정경까지도¹⁹⁾ 시편 속에 밝히며 守成을 못한 말로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확인한 후왕비의 강개를, 다른 작품과 함께 읽으며 그 의미를 살피도록 한다. 「南坡金公殉節歌」가 그것인데 小序를 보면 南坡 金光輔가 合浦의 수장이 되어 三嘉의 栗林坪에서 왜적과 싸우다가 힘이 부쳐 패사하였는데 李陶隱이 〈嗚呼歌〉로 칭예하였던 바, 회당이 그 후손에게서 비석에 적을 글을 부탁받고 쓴 작품이라고 한다²⁰⁾. 이러한 상황에서 쓴 작품이니 순절한 인물의 절의를 칭예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으니 “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今”의 정황을 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에게 청하노니 시험삼아 오늘날 천하를 보시오,
온 세상이 몰락하여 오랑캐 땅이 되었다네.
조정 대책 좋지 않으니 군왕이 죽대 없이 휩쓸리며 두려워하고,
짐승들 자취 방자히 미쳐 날뛰는구나.
사람마다 순국함을 공과 같이 한다면,
중화 존중하고 이적 배척함을 무엇 때문에 근심하라.
(請君試看今天下, 四海淪爲卉醜鄉.)

19) 1912년 신해혁명으로 퇴위된 溥儀의 이력을 적은 것으로 보인다.

20) 南坡按麗史稱朝, 南坡金公光輔知合浦, 與倭戰于三嘉栗林坪, 力屈遂死之, 李陶隱, 以嗚呼歌一闕, 贊揚之, 今其後孫, 方紀績于碑, 而更求當世知言之筆, 以廣其事, 遂作此以歸之. 아래 각주와 같은 곳에서 인용했음.

廟算無良綴旒攄, 鳥蹄獸跡恣被倡.

人人殉國有如公, 何患華夷不尊攘)²¹⁾

회당의 진단에 의하면 온 천하가 오랑캐가 걸치는 옷을 입고 오랑캐들이 먹는 것을 먹는 이적의 세상이 되었다. 조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妙算이 없어 황제는 좌고우면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이적들은 거리낌 없이 미치광이 짓을 더하고 있다고 당대를 잃어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어 작품의 주체인 남파공과 같은 순절이 이어진다면 존왕양이의 질서가 흐트러짐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처방까지 내리고 있으니 역시 보수적인 儒者로서의 회당을 확인할 수 있다. 농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표면으로는 천하의 정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은성적으로는 당대 조선의 암울한 정황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 정세의 부침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용렬한 관료나昏主를 직접 호명하며 비판할 수 없기에 고려조의 순절을 기리며 구태여 청나라 조정을 들며 우회적으로 당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은 後王費의 비감과 강개는 위의 작품과 포개어 해석할 때 당대 조선에 대한 비판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겠다. 요순과 달리 사치를 일삼아온 역대 군왕의 모습에서, 왕건과 달리 황음을 일삼는 고려조 군주들에서 그리고 북방 민족의 강건함에 문식을 조화시킨 선왕과는 달리 유약에 흐른 청조의 後主들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저들 後王이 회당 당대 자신의 군왕이 지닌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장을 넘겨 회당 시문에 투영된 인식의 또 다른 일면을 살피기로 한다.

21) <金公殉節歌并小序>. 晦堂先生文集卷之一. (경인문화사 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4권. 273-275면.)

2) '後死悲'의 悔恨

회당의 시편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특징적인 면모는 후사비의 상상력이 빈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쇠모한 몸 어찌 나중 죽는 비감을 견딜 수 있으리오(衰暮那堪後死悲)'²²⁾나 '세사가 지금 이와 같으니 나중 죽는 슬픔을 어찌 견딜 수 있으리오(世事今如此, 那堪後死悲)'²³⁾에서와 같이 후사비의 상상력은 도처에서 산견된다. 간헐적으로 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시문 곳곳에서 토로된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강고하게 각인된 회한이라는 말에 다름 아닐 터이니 그 대목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첫 작품은 기암에 대한 輓詩이다.

우리 道 이날로 없어지니, 탄식한들 다시 무엇을 할 수 있으리오.
인간 세상 어떠한 세상 되려나, 나중 죽음을 참으로 슬퍼할 밖에.
(斯文日以喪, 歎息復何爲. 人間何世界, 後死諒堪悲)²⁴⁾

3구에서 확인되는 회당의 당대 인식을 유념하도록 한다. 회당이 인간 세상을 어떤 정황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죽은 이를 두고 오히려 죽음이 뒤진 자신의 신세가 비애롭다고 관념하는 것인가. 해당 시편에서는 추정한 단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다른 작품을 포개어 살피도록 한다.

공 죽음 또한 무엇이 슬프랴, 이 세상 인간과 짐승 뒤섞여있으니.
(公歸亦何悲, 此世渾人獸)²⁵⁾

22) <挽尹忠汝胄夏0丁未>, 『晦堂先生文集卷之一』.(경인문화사 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4권. 261-262면.)

23) <挽李應賢鉉汶>, 『晦堂先生文集卷之二』.(경인문화사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4권. 294면.)

24) <挽李廣初中業>, 『晦堂先生文集卷之二』.(경인문화사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4권. 333면.)

사람의 죽음을 목도하며 비애감에 젖는 것이 통상적인 정감일 것이다. 그런데 제시되고 있는 시편에서는 죽음을 대관절 왜 슬퍼해야 할 것이냐는 의외의 단상이 제출된다. 그러한 언급에는, 특히 인간과 짐승이 혼거하는 이지러진 당대를 말하는 구절을 통해, 綱常이 땅에 떨어진 현실을 살아가느니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인식이 기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앞 작품에서 지문한 ‘何世界’는 곧 인간이 짐승과 혼거하는 강상이 추락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해당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기에 ‘청근대 세상일 보게나, 삶이 애처롭고 죽음이 또한 영광이라네(請看世間事, 生哀死且榮)²⁶⁾와 같이 보다 명시적으로 삶을 비애로 죽음을 영화로 관념하는 시편이 제출되기도 하는 것이다. 아래 작품은 후사비의 상상력이 제출되는 구체적인 원인을 보다 명료하게 적시하고 있다.

나중 죽으니 어찌 망국의 눈물 참을 수 있으리오,
 어즈버 그대는 그나마 대한의 신민일 수 있다네.
 (後死那堪亡國淚, 嗟君猶作大韓民)²⁷⁾

죽음에 상심되지만 그럼에도 대한제국의 잔명이 다하기 전에 죽어서 대한의 신민으로 불릴 수 있기는 하다고 하며 자신은 망국의 遺民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애달파 하고 있으니 그 울림이 자못 유장하다 하겠다.

그런데 후사비의 상상력이 특히 만사에 빈출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만사의 속성에 견인된 정서로 간주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작품이 쓰인

25) <挽申外兄仲雍相穆>, 『晦堂先生文集卷之一』.(경인문화사 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4권. 234면.)

26) <挽張舜矩柄志二絶>, 『晦堂先生文集卷之一』.(경인문화사 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4권. 278면.)

27) <挽李聖武承喆>, 『晦堂先生文集卷之一』.(경인문화사 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4권. 280면.)

정황을 보면 사정은 그렇지 않으니 당대 상황에 대한 처연한 심사의 발로 임을 확인할 수 있다. 後死의 안타까움이 ‘世事’ 때문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니 시대적 배경과 절연된 심회에 머문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기암의 경우 苟生의 상상력이 미만해 있었던 바²⁸⁾, 회당의 경우 후사비의 상상력이 피력되고 있다고 하겠는데 이 시기 전통적인 지성의 당대에 대한 인식의 특징적인 측면으로 항목화할 수 있겠다.

이와 함께 흥미로운 점은 회당 자신이 ‘身先老’의 정조를 제출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이다. 창작 년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을사오적을 주살하라는 주청을 위해 상경한 즈음의 작품인 듯 한데 함께 살피기로 한다. 시편에서 회당은 풍전등화에 처한 국운 때문에 하늘을 향해 오래도록 탄식을 하기도 하며 해괴한 사조들의 風靡에 경악을 금치 못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조정에 저러한 변괴를 대처할 이 없음을 지적하며 온축한 경륜이 없지 않으나 초야의 서생이라 임금을 배알하여 시무책을 제출할 수 없는 정황을 안타까워 하기도 한다.

후반부에서는 응지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축한 경륜을 현실에서 실현할 통로를 마련하지 못하고 몸이 먼저 늙어 林泉에서 소일하게 된 신세를 신산스러워 하고 있다.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몸만 먼저 늙어감을 안타까워 하는 회한의 밑자락에는 현실에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깔려 있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아래 시편을 제출하고 있는 회당은, 당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자신이 온축한 경륜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기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남녘에서 온 포의지사 남산에 올라,

28) 기암이 내면화한 ‘구차히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울혈’에 대해서는 「기암 이중업론」(한국고전연구 14집, 2006. 205-207면.)에서 검토한 바 있다.

하늘에 탄식하며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네.

모든 사람이 꿈 속에서 미망 중에 있고,

갓가지 괴물이 천지 간에 치달리고 있네.

鐘鼎에 그 뉘가 호랑이 끝 위험 알라,

초야의 사람이라 용안빌 수도 없네.

공연히 응지를 폼었어도 몸이 먼저 늙었나니,

초야로 돌아가 스스로 한적하고저.

(南來布褐強登山, 歎息皓天久不還. 萬生皆夢迷茫裏, 百怪交馳覆載間.

鍾鼎誰知危虎尾, 草茅無路拜 龍顏. 空懷壯志身先老, 歸去巖阿任自

閒.)²⁹⁾

온축한 경륜을 펼칠 수 있을 즈음에는 몸이 먼저 늙어짐을 안타까워 한 장년기 이전의 회당이, 국운을 회복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지경에 이르러서는 후사비의 상상력에 압도되었던 바, 이러한 변전이 비단 회당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대 전통적인 지성의 통상적인 현실 인식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하겠다. 장을 넘겨 마지막으로 국내에서의 삶을 이어내지 못하고 국외에서 유리하는 회당 자신과 이향민들의 신산스러운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들을 살펴도록 한다.

3) '離鄉客'의 苦楚

후왕비나 후사비와 함께 회당의 시문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국외를 유리하는 이들의 신산스러운 정경이다. 회당 자신이 망명 생활을 하기도 했으니 자신의 체험을 작품에 녹여낸 경우라 하겠는데, 당대의 거족적인 수난을 증언하는 자료로서도 소중해 보인다.

29) <登終南山>, 晦堂先生文集卷之一』.(경인문화사 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4권, 240면.)

시문 도처에 이르면 ‘나는 고향을 떠난 나그네 되어(我作離鄉客)³⁰⁾’와 같은 구절이나 ‘나는 강주를 떠도는 나그네 되었으니, 굴러다니는 쭉처럼 유리하고 있다네(我作江州客, 流離似轉蓬)³¹⁾’와 같은 표현 그리고 ‘중국 땅 이역에서 나는 떠돌고 있네(江州我漂泊)³²⁾’라는 시구를 통해 국외를 떠도는 신산스러운 신세와 그에 말미암은 고단함을 형상화하고 있다. 물론 뿌리 뽑혀 떠도는 자의 감개는 문학 속에서 빈출하는 주제이겠으나 망국의 유민이 겪는 艱苦는, 저러한 일반론의 자장에서 머물지 않고 당대적 정황과 함께 결부하여 검토할 만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자신의 신산스러움만이 표출된 것이 아니라 당대 집단적으로 이주한 간도 유민의 참상을 증언하고 있기에 보다 소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회당이 그리고 당대 다수의 백성들이 국외에서의 漂泊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한 편토마저 지금은 강역이 없어졌으니,
어느 곳 청산에서 杜門할 수 있으리오.
(三韓片土今無地, 何處青山可杜門)³³⁾

장차 이 하찮은 몸은 어느 곳으로 갈거나.(將此微軀何處去)³⁴⁾

30) <挽三從兄丕兼錫贊>, 『晦堂先生文集卷之二』.(경인문화사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4권. 295면.)

31) <挽韓通政舜若>, 『晦堂先生文集卷之二』.(경인문화사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4권. 296면.)

32) <挽沈義瑞相岳>, 『晦堂先生文集卷之二』.(경인문화사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4권. 290면.)

33) <松京二絶>, 『晦堂先生文集卷之二』.(경인문화사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4권. 282면.)

34) <聞亡國報述懷>, 『晦堂先生文集卷之一』.(경인문화사 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4권. 271면.)

世道가 이지러지거나 자신의 立志와 시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어찌면 손쉬운 선택이 전원이나 향리로의 退藏일 것이다. 그런데 나라를 잃은 유민의 경우 퇴장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으니 국외로의 逃命이 상정 가능한 유일한 선택인 것이다. 사정이 이러했기에 술한 ‘회당들이’ 당시로는 불모의 땅인 간도로의 이주를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 그렇다면 여기에서 살필 시편은 저러한 정황에 대한 보고서라 할 수 있겠다. 간도가 향해간 유민들의 참상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두툼한 편폭이지만 살피도록 한다.

이 땅은 환란도 피할 수 있으며, 가문도 보존할 수 있다고.
 한 번 전해지고 거듭 전해지다, 천만 번이나 전파되니.
 수레에 타려면 수레가 용납 않고, 길에 있으려도 어깨 서로 부딪치네.
 큰 고을은 마을 거의 비우고, 작은 고을은 동네 텅 비게 되었다네.
 이천리 길 끌고 당겨 와, 이고 지고 강 건너는 이들 늘어섰네.
 먹을 것 진작에 떨어졌다 하니, 장정들은 배도 채울 수 없네.
 북풍 한설은 매섭기만 하고, 늙고 약한 이들은 잔나비 울듯이 하네.
 앞 길을 손꼽아 헤아려 보지만, 아직도 천리길 멀디 멀구나.
 관군들 싸워봐야 패전만 늘어 가고, 도적들 발호함은 빈번해진다네.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발과 집 이미 전부 팔아버렸고.
 또한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舟車 살 돈이 없구나.
 황천이 우리 신민 나게 하고는, 어찌 이리도 끔찍한 곤액을 겪게 하시나.
 선왕들 나라 제사로 받들리지 못하시니, 신민의 명운은 나라와 함께 해야
 마땅하지.

내 북으로 걸음하는 동안에, 눈 가는 곳마다 근심할 일뿐.
 이와 같이 서간가를 지어서, 우리 동포들에게 고하노라.
 (此地可避病, 此地可保家. 一傳又再傳, 千傳又萬播.
 在車車不容, 在途肩相磨. 大方傾其里, 小方空其方.)

提攜二千里，渡江聯負襁。資糧已告乏，丁男不充腹。
 北風吹寒雪，老弱如猿哭，屈指計前程，尙有千里賒。
 官軍戰敗績，梁山竊發多。更欲還故國，田宅已盡賣。
 又欲前進去，舟車無錢買。皇天生我民，困厄胡此極。
 先王不血食，民命宜共國。于時我北征，萬目思忉忉。
 作此西間歌，告我諸同胞)³⁵⁾

오래도록 타국민이 점유하여 우리 강역임에도 돌려받지 못한 곳임을 서두에서 이야기한다. 이어서 그 지역이 환난을 피할 수 있으며 집안도 건사할 수 있는吉地라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 수레에 올라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리고 길이 좁아 터질 정도로 유민의 행렬이 가득한 풍경을 있는 그대로 그린다. ‘避病’과 ‘保家’를 위해 삼천리 신고의 길을 강제하는 한계 상황이 명시적으로 진술되지는 않았지만 조선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초스러웠을지는 선연히 짐작된다 하겠다.

작품의 前半이 이주를 강제하는 고국의 정황을 그려내고 있다면 중반부에서는 이주 과정의 신산스러움을 꺾진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고국을 등지고 이역만리로 몸 의지할 터전을 찾아 헤매는 풍경을 채록하고 있는 바, 주리고 시린 몸이 비적들의 노략질에까지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참상은 여정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할 정도의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데 그럼에도 다른 방도가 없으니, 향리의 전답은 진작에 처분하였으며 간도로 갈 여비도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진퇴양난의 형국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발디딘 곳은 주리고 시린 중에 비적들까지 발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뒤로도 걸음을 내디딜 수 없으니 구덩이에 나뒹구는 주검으로 화할 수순 이외의 방도는 있지 않은 것이다.

35) <見間島流民有感>, 晦堂先生文集卷之二』.(경인문화사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4권. 284면-285면.)

마지막으로 종묘 제사도 받들지 못할 정황이니 백성들의 운명이 도탄에 빠지는 것은 차라리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고 하여 반어적으로 사직이 단절되기까지 내몰리게 된, 그리하여 백성들을 구덩 속에 덩굴게 만든 당대 상황을 비판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눈에 밝히는 모든 참상을 형상화하고 있는 해당 시편은 당대 우리 민족이 겪어낸 수난에 대한 년픽션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살핀 바와 같이 회당은, 자신의 체험이 녹아 있는 뿌리뽑혀 떠도는 을씨년스러움과 상황에 떠밀려 표박하는 백성들의 고난을 함께 그려내고 있는 바, 우리 문학이 담아낸 간도 체험의 폭을 넓힌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겠다. 저러한 참상을 동포들에게 알리는 것은, 간도로 향하는 유민들의 운명이 국운을 다한 조선 왕조의 나아가 그 강역을 살아간 삼천만 신민 모두의 명운이기도 한 때문일 것이다.

4. 마무리

본고에서는, 모두에서 적시한 대로 전통적인 지성의 근세에의 대응을 고구하려는 장기적인 기획의 일환으로, 회당 장석영의 사유의 대강과 대현실안을 살피며 시세계의 특징적인 국면을 셋으로 항목화하여 검토하였다. 主氣的 성향에 대한 비판이나 공교에 대한 태도를 통해 主理와 宋代理學에 대한 경도와 존신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적어도 국권을 상실하기 이전까지는 대내외적인 과란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심을 의연히 간직하고 있었음을 또한 확인하였다.

회당의 시작품은, 특히 당대 현실에의 대응에서 피어난 소회를 예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詩句만으로 좁혀 각각 ‘後王費’의 慷慨, ‘後死悲’의 悔恨, ‘離鄉客’의 苦楚로 항목화하여 그 대체적인 양상을 살폈다. 구

한말부터 독립을 위해 고투한 만주 체류기에 이르기까지, 역사 일반을 통해 그리고 위로는 고려조를 옹호하는 청조를 통해 사치와 방종으로 쇠락에 이른 정황을 비판하고 있으니 이는 분명 당대 조선 왕조의 末弊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저러한 왕조의 말패에 말미암아 망국민으로 전락한 간도 流民들의 참상을 회당은 선연하게 그려내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독립을 위해 풍찬노숙하였으나 사세를 돌이킬 수 없게 되자 ‘後死悲’의 회한에 젖는 정조도 제출되고 있다. 이러한 회한은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비단 회당만이 아니라 겨우 ‘苟生’하고 있다는 起岩의 인식에서도 확인되니 그렇다면 잠정적으로는 국권 회복을 위해 분투했으나 바람을 이루지 못한 당대 전통적 지성의 보편적인 현실 인식이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이처럼 음울한 현실 인식은 이른바 ‘위정척사파’로 이해되는 한 세대 이전의 유림들에게 확인되는 ‘開化’에 대한 준엄한 질타와는 뚜렷하게 구획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회당과 비슷한 연대를 살아간 인물들 간의 편차나 앞 시기와 뒷 시기 유림들과의 異同은 후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며 근세기 전통적 지성의 당대적 의의를 보다 곡진히 재구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이만도, 『향산선생문집』, 한국역대문집총서 429-432, 경인문화사, 1992.
 이중업, 『기암유고』, 여강출판사, 1986.
 장석영, 『회당선생문집』, 한국역대문집총서 894-900, 경인문화사, 1994.
 한국학문헌연구소편, 『大東詩選上』, 아세아문화사, 1980. 730면.

- 김상기, 『한말의병연구』, 일조각, 1997. 340면.
김희곤, 『안동의 독립운동사』, 안동시, 1999. 451면.
남부희, 『유림의 독립운동사 연구』, 범조사, 1994. 356면.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한말 영남 유학계의 동향』, 영남대 출판부, 1998. 662면.
이택동, 「기암 이중업론」, 한국고전연구 1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191-217면.

ABSTRACT

On the Study of Hoi Dang Jang Suk Young(晦堂 張錫英)

Lee, Taek-Dong

Hoi Dang Jang Suk Young(晦堂 張錫英) is a independence fighter in the 19th and 20th century of Chosun Dynasty. He was a representative scholar in the 20th century of Jo-seon Korea. It is thought that a study of Hoi Dang Jang Suk Young(晦堂 張錫英)'s literature is needed for discovering general history of Sion-Korean literature in the 20th century. This view point affected on the development of this essay. He was struggled with an Japanese imperialism. The other side, he regarded his cognition and thinking in the same light as traditional cognition and thinking.

I think that the trend of study of the that period has been concentrated in people who struggled with an Japanese imperialism. In the end, based on the study of Hoi Dang Jang Suk Young(晦堂 張錫英), general characteristics of literary phenomenon by traditional highbrow in the 19th and 20th century also could be examined.

Key Words Hoi Dang Jang Suk Young, Lee Jung Up, traditional intelligence, antifeudalism, 19th, 20th

논문투고일 : 2009. 3. 31
심사완료일 : 2009. 4. 29
게재확정일 : 2009. 5. 15